

1990년 정기총회 ·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5월 11일 가톨릭의대 1층 강의실에서 90년도 정기총회 및 제43차 세미나를 가졌다.

하오 4시부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87년 제정된 ‘가톨릭의료기관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한마음 한몸 운동의 하나로 불우맹인들을 위한 허안 및 각막이식수술과 관련된 워크샵을 6월 16일~17일 강남성모병원에서 개최하며, 1987년부터 남미 에콰도르에서 펼치고 있는 의료지원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해 나갈것 등을 결의했다. 또한 가톨릭의료기관이념을 활성화하고 병원운영과 관련되는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톨릭병원연구소’(가칭)의 설립을 위한 연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상오 10시부터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90년대의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병원협회의 역할과 기대’에 관해 정기선 박사(서울대병원연구소 자문연구위원),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미래구상’에 관해 맹광호 교수(가톨릭의대), ‘미국가톨릭병원협회의 이념과 활동’에 관해 장덕필 신부(서울 수유1동 본당주임)등이 각각 강의했다.



세미나 종합토의의 광경(1990. 5. 11)

1990년 추계 세미나 성료

본 협회 추계 세미나가 지난 10월 19~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가톨릭병원장 및 관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 특강과 주제발표등을 통해 교회병원의 위상정립을 모색했다.

협회장 김대균 신부께서 「교회의료기관의 선교적 측면」이란 제목의 특강에 이어 서울 수유1동 본당주임 장덕필 신부께서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과 행정」을, 강남성모병원 박순노 원무과장이 「현 보험제도하에서의 원무행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섰다.

장덕필 신부는 『가톨릭계병원은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경영인이 아닌 의료진이 경영까지 맡고 있어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이라면서 이를 개선해야만 효과적인 병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순노 과장은 『가톨릭병원의 발전과 선교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정보와 실천방안을 연구하는 가톨릭병원연구소를 설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친교의 시간에 에콰도르 의료지원 활동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도 했으며 다음날 『교회의료기관에서의 바람직한 원무행정』이란 주제를 놓고 가톨릭중앙의료원 조성훈 원무원장의 사회로 열린 토론을 버렸다.

‘의학윤리지침’ 초안 마련

10월 19일 개최된 이번 추계 세미나에서 지난해 총회에서 거론한 바 있는 ‘의학윤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간 의료원이념구현위원회에서 준비한 초안을 제시하고 이 일을 주관한 김중호 신부께서 초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목포 성골롬반병원 성당에서 아침미사(1990. 10. 20)

진료와 의술시행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이 초안은 9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한 예를 들면 ① 가족계획이란 무엇인가? ②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③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등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협회는 금년말까지 각 회원병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학윤리지침’을 제정하고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각 병원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 **헌안 및 각막이식 워크샵 성료**

본 협회는 가톨릭의대 안과학교실과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후원으로 지난 6월 16-17 양일에 걸쳐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의실과 회의실에서 각막이식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샵을 강남성모병원 안과과장 김재호 교수 주도로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안과 의사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워크샵에는 가톨릭계병원 안과전문의 스태프 17명이 참가하였는데 이로서 지역별로 안은행의 설치운영과 헌안운동도 활발히 전개될 것이며 한편 각막이식술도 모든 가톨릭계병원 안과에서도 시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남미 에콰도르서 仁術 봉사활동**

본 협회와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박용희)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 의료봉사팀은 지난 7월 26일-8월 13일까지 에콰도르 과야quil 교구 빨마본당(주임 최규업 신부) 관할지역에 의료진을 파견,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참가한 의료진은 가톨릭의대 김중호 신부, 강남성모병원 소아과 이준성 교수, 성바오로병원 내과 문화식 교수, 성가병원 임상병리과 김청옥 수녀 등 6명으로

2주동안 빨마본당과 9개 공소를 순회진료하며 1,665명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었다. 금년에는 특히 소형 X-선 촬영기, 증기소독기, 태아 심음 청취기, 검사기자재등을 가져가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의료팀은 오전에는 빨마본당이 운영하는 파티마 성모기념본당진료소에서, 오후에는 각 공소를 돌며 진료를 했는데 주민들이 새벽 4시부터 새옷을 입고 찾아와 기다리는 열성을 보였고, 그만큼 우리 의료팀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영과 신뢰를 받았다.

본 협회는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회원병원의 도움을 받아 1987년에 약 1톤의 의약품을 보냈고 지난해에는 성금과 의약품등 1,7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의료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가톨릭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 원주 가톨릭병원 승격

원주 가톨릭병원(원장 : 하이디 부라우크만 수녀)이 지난 3월 5일 일반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 64병상(일반 30병상, 결핵 34병상)을 갖추고 병원으로 승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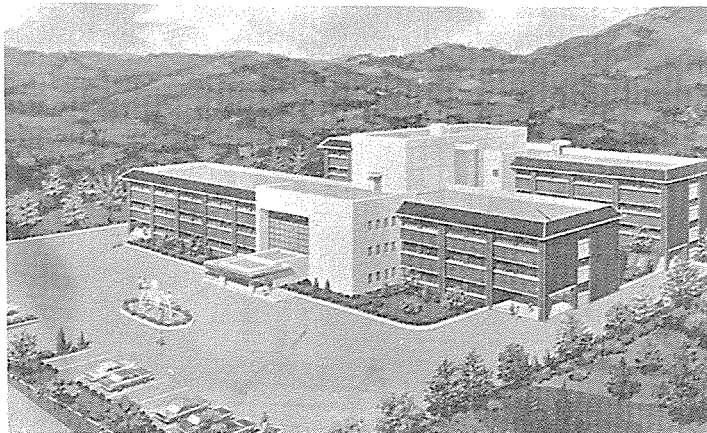
원주 가톨릭병원은 천주교(교구장 : 지학순 주교) 유지재단이 영세민들의 결핵 퇴치를 위해

1982. 1. 18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결핵의원으로 발족한 후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난 1984년 서독 「미쇼」와 「미제레울」의 지원으로 원주시 학성1동에 병동을 신축 이전해었다.

• 성안드레아 신경정신과 병원 개원

천주교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는 7년여의 오랜 준비끝에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표교2리에 건립한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병원장 최순화 수사)은 지난 7월 12일 개원식을 갖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창설없는 개방정신병원으로 출발했다. 성안드레아병원은 2만 8천평 대지에 2천 4백평의 3층 H자형 건물로 병상은 초기진단 환자용 50병상을 비롯 회복치료단계(50병상), 사회복지단계(100병상)등 모두 200병상으로 의사 11명, 간호사 50명, 사회복지사 5명등 의료진을 확보하고 외래진료부에 신경과, 정신과, 내과, 외과등을 두고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치료를 하게 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성안드레아병원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환자치료와 재활, 사회사업에 상호협력하고 의료진 및 의료기술을 지원하며 전공의와 학생실습도 실시하게 된다.



성 안드레아 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신축기공식

가톨릭의과대학 의정부성모병원(원장 : 김승남 교수) 이전 신축기공식이 지난 8월 25일 신축공사장인 의정부시 금오동 현지에서 재단이사장 김수환 추기경님을 대리한 김옥균 주교님과 의료원장 김대군 신부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옥균 주교님은 치사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주민의 숙원인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만큼 관계자 모든 분들이 꾸준한 노력과 기도를 통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훌륭한 병원이 꾸며지기를 기원해 주셨다.

1990년 한·일 가톨릭의료기술협력 사업보고

본 협회와 일본 성마리아병원이 1988. 10. 27 체결한 한·일 가톨릭의료기술 협력약정에 따른 1990년(제2차년도) 사업실적은 아래와 같다.

-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11월 1일 일본 성마리아병원에서 1991년도

양국간의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제3회 한일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측 위원장 김대군 신부, 일본측 위원장 井手一郎원장 및 양국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90년도 사업보고가 있는 후 연수생의 어학능력향상과 연수분야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 사항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 1) 한국가톨릭병원협회는 1991년에 금년 수준의 연수생(7명 내외)를 선발하여 성마리아병원과 파견문제를 협의한다.
- 2) 성마리아병원이 파견하는 단기대학 학생실습을 1991년 10월말에서 11월초에(1주간)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시한다.
- 3) 간호관리교육과 호스피스 교육을 위하여 성마리아병원 간호사를 1-2개월간 강남성모병원에 파견한다.
- 4) 성마리아병원 견습의의 일차 보건의습을 위하여 한국측이 전문가를 일본 성마리아병원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 성마리아병원에 연수생 7명 파견

본 협회가 일본 성마리아병원에 아래와 같이 7명의 연수생을 파견 1-2개월간 연수를 수료했다.



우리 연수생들의 간호학생 가관식 참관
左로부터 한창연, 남신우, 井手一郎병원장, 윤화식

소 속	연 수 자	연수분야	연수기간
가톨릭병원	감독 간호사 김정자 간 호 사 한경혜	영유아 건강관리 신생아 간호	90. 8. 1~8. 30(1개월)
성 모 병 원	자 재 계 장 남신우	자재관리	90. 10. 1~10. 31(1개월)
메 리 놀 병 원	흉부외과과장 한영숙	심장, 식도외과	90. 10. 1~11. 30(2개월)
대전성모병원	방사선 기사 윤화식 병 리 기 사 김천기 병 리 기 사 한창연	방사선 전반 병리 전반 병리 전반	90. 10. 1~11. 30(2개월)

• 성마리아병원 교직원 견학차 내원

일본 성마리아병원 교직원 44명(의사 8명, 간호사 19명, 의료기사 5명, 행정직·기타 12명) 일행이 지난 10월 11일 강남성모병원을 견학차 내원하였다. 오후 2시 의무원장과 많은 교직원의 영접을 받은 성마리아병원 교직원은 2층 임상강의실로 안내되어 김승조 병원장의 환영인사 말씀과 병원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한 후 임상 각과와 병동 및 행정 각 부서를 견학하고 2층 회의실 다과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방문을 기념한 선물로 성마리아병원측에서는 일본전통인형을,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성모마리아상을 전달하였다.

• 성마리아병원 간호사 연수차 내한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남성모병원 6개 부서에 일본 성마리아병원 간호사 20명이 지역사회 보건학 연수과정으로 병동실습을 **실재**하였다.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간호는 하나임을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양국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는 가톨릭의과대학과 일본 성마리아학원 단기대학이 1989. 11. 27 체결한 간호교육협력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